

## 건설부장관상 에너지절약형주택 부문

김기홍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탑

많은 현상공모전 중에서 이번의 공모전은 에너지를 주제로 한 아주 실질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피부에 와닿는 주제라 생각한다.

모든 전람회가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모양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번 공모전은 모든 건축관계인은 물론 일반인에게 까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주제라 생각한다.

작년 연말,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상황을 검토하며, 지켜보면서 그동안 건물설계, 특히 주택설계에 있어서 건축주의 취향, 요구사항과 설계자의 의도 - 기능성, 건축미, 적절한재료, 기타 여러사항 등 - 를 종합하여 신중을 기하고 해결하느라 고심을 하면서도 냉·난방(에너지소비)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 했던감이 있다.

우리의 에너지소비 추세를 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겠지만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75% (1983)에 이르고 여기서 주택부분에서의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35% 정도가 되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임을 깨닫는다.

또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수요가 건축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무관심할 수 없다 하겠다.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는 현재 도시에서 36.7%의 주택 부족율을 안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5.5%의 부족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한 저렴하게, 신속히, 대량으로 주택을 보급 할 수 있게 건축 관계자들이 연구·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특히 설계기법에 있어서도 단순하며 통일성 있고 변환점있는 설계로 발전시켜 나아가 건축인으로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얼마전에 해외건축가와의 자리에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에너지 절약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자랑스레 늘어 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해 - 자원량, 개발정도, 소비량 해외의존도 등 - 문의하여 주에너지가 해외에서 비싼 달러로 구입이 되고 부존자원도 충분치

못하다는 대답을 하면서 우리의 실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나며 오히려 이런 공모전이 좀 늦지않았나 하는 감이 든다.

주택은 주택이 갖는 특수성이 있어 — 특수한 소수의 집단이 생활을 영위하는 그릇으로서, 또 사회의 최소단위로서 — 주어진 대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생활조건 여기에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과학 건축학적인 조건들을 총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조정과 연구를 거듭했지만 시간에 쫓겨 미흡하나마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이 제 1회 공모전인 만큼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 앞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더 좋은, 더 바람직한 공모전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여러방면으로 애쓰고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최측에 감사를 드린다.

## 동력자원부장관상 자연형태양열주택 부문

강대호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원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수 년전의 일이다.

석사과정의 초반기 부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적 접근방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자연형 개념은 나에게 상당한 호감을 불러 일으켰고 그 가능성과 적용성에 적잖은 기대도 있었다. 처음 접했을 때에는 겁없이 쉽게만 이해하려 했던 이 개념이 점차 공부를 더 해감에 따라 실제 적용상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에 접붙이기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상당한 고민을 해야했다.

그러나 차츰 이 방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서도 Passive적인 (자연형의 개념에 입각한) 방법이 많이 적용되었으며 우리의 조상들도 꼭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각종 자연적인 건축 재료와 건축적인 기법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기후적인 또는 지형적인 외부조건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 수상소감

### Impression of Receiving Prize

또한 외국의 다양한 풍토건축 (Vernacular Architecture)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형의 개념(Passive Approach)은 아마도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건축개념이 아니었기겠느냐라는 확신을 갖게된다.

따라서 자연형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근대건축에서 현대건축으로의 변천 속에 건축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른 고도의 설비화에 묻혀 잠시 잊혀졌던 개념의 재등장이라고 믿고 싶다. 다만 그러한 고전적인 기본개념이 시스템화라는 현대적인 과학화의 경향에 따라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자연형 시스템의 적용은 1970년대 에너지 파동 이전부터 있었으며 에너지 파동에 자극받아 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설계 그리고 건설이 급속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연형 건물이 10만호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역시 상당히 많은 자연형 건물이 보급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연형 태양열시스템의 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정립되었고 각종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수치적인 열성능분석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궁극적으로 건축화하는 일은 우리 건축가가 맡아야 할 분야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찌기 수년전부터 이러한 자연형 건물설계 공모를 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공모전과 같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많은 건축가들이 관심있게 주목하고 연구

함으로써 우수하고 아름다운 자연형 건물이 지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설계공모 기회를 열어주신 대한건축사협회에 고마움을 느끼며 졸작을 최우수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함께 땀흘리며 작품작업을 했던 동양건축의 강철구 소장님, 김태선님, 오홍중님과 연세대 박사과정 김기환 선배님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지금까지 이 방면에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연세대 이경희교수님과 동력자원연구소 오정무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전의 기회가 좀 더 많이 있기를 고대하며 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가 계속될 때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건축시대가 저 무한한 에너지원인 밝은 태양과 함께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결실을 하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리라 다짐해 본다.

(본 최우수상 수상은 필자이외에 강철구, 김태선, 오홍중, 김기환 공동임을 밝힌다.)

### 과학기술처장관상 학생부문 최우수상

김대중/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대학에 들어와 건축을 처음 접할때의 막막함이 올해로 만 4년째 이다. 아직

미숙하기만한 우리에게 막상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무어라 얘기할 수 없다. 우선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울리며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수상에 즈음하여 부끄럽기만한 작품을 정리해 본다.

본 작품의 계획 단계에서 가장 고심했던 것은 제약인자들로 인한 평면형태의 확실성과 입면상의 단조로움 이었다. 평면형태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해, 공간 구성의 중심이 되는 거실부분을 자연스러운 곡면벽으로 처리함으로써, 변화를 유도 하였고 곡면벽 윗부분에 Open-space를 둠으로서 공간의 깊이를 더했고 아울러 온실에서 태워진 공기의 광범위한 흐름과 자연스러운 통풍을 유도하였다. 입면상의 단조로움은 남쪽정면부 전체가 유리로 덮여아하는 제약 조건때문 이었다. 결국 입면은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의해서만 결정이 아니하였는데 만족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내진 못하였던것 같다. 좀더 열심히 하지못한 아쉬움과 함께 이번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준 선배님들과 후배들에게 그 고마움을 이번의 영광으로 대신하고 싶다.

길고 지루했던 하나 하나의 과정이 끝날 때 마다 고통에 가까웠던 시간들이 보람 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아름다움 때문인 것이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서로의 미숙함과 어설피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엮어 나가는 그 아름다움이다. 그 이러한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길은 멀고 험할수록 같단 하다는 어느 선배의 말이 입속에서 맴돈다.

(본 수상은 윤희진, 김유한과 공동임)

## 바로 잡습니다.

1986년 4월호 건축사지 58쪽에 게재된 내용중 <대체에너지 주거부분에 작품을 기대> 제하의 이남호 동력자원연구소 태양에너지응용연구실장의 글은 <앞으로는 복합적인 에너지원 창조> 제하의 이명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원장의 글임을 밝힙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복합적인 에너지원 창조> 제하의 이명호 원장의 글은 이남호 실장의 <대체에너지 주거부분에 작품을 기대> 제하의 글임을 밝힙니다.

편집실무진의 실수로 두분 글의 제목과 필자명을 서로 뒤바뀐데 대해 이명호 원장과 이남호 실장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회원여러분의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4월호 49쪽의 모형사진과 50쪽의 모형사진도 서로 바뀐 것임을 밝혀 바로 잡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출판사업무>